

사회

노후 택시의 둔갑 '대포차' 활개

광주경찰, 271대 유통 조폭 검거... 범죄 이용 많아 시민들 '불안'

안전검사 안받고 보험 안들어 '도로의 흉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유행차인 '대포차'가 도로를 질주하고 있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대포차는 차주 대부분이 불법 용도나 불순한 의도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무질서한 운행으로 인해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대포차는 택시를 일반차량으로 바꾸는 법적과정을 밟지만 대다수가 사용 연한이 거의 다 된 중고차다. 그러나 대포차주들은 소유권 이전없이 차량을 건네받은 탓에, 차량 구입후 장기간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도로 위의 흉기가 다름없다.

또한 대포차는 판매업자가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한 채 차량만을 판 뒤, 폐업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유자없는

유행차가 된다. 이로 인해 대포차주는 각종 세금을 내지 않음은 물론 교통 위반시 제재를 피할 수 있지만, 경찰은 차적 조회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대포차 유통 조폭 검거=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영업용 택시를 일반 승용차로 변경한 뒤, 이를 판매한 서울 S과 행동대장 김모(37)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시 광산구 흑석동 하남 자동차매매단지에서 매매 상사를 개설했다. 이후 지난 1월까지 영업용 택시를 사들여 일반 승용차로 바꾼 뒤,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대포차 271대를 유통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

득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고객들에게 일반 중고차보다 50%가량 싼값에 대포차를 판매하면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자신의 회사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대당 25만원의 수수료도 챙겼다.

영업용 택시를 일반 차량으로 사용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4조·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에 따라 차령 초과(2400cc 미만 7년) 이전 대체차 신고(광주택시조합)를 한 뒤, 교통안전관리공단 지정 검사소에서 차량의 상태 등을 점검·합격해야 한다.

경찰은 대포차들의 교통위반 과태료가 8000만원에 달하지만, 해당 차량이 상사 명의로 등록돼 있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또 대포차 구입자가 260명 정도로 보고 있으나, 차량 거래장부가 없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포차 거래 차단 방법 없애= 우선 대포차 판매상이 폐업할 경우 사실상 무적차량이 되기 때문에 이 차량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부 업자들은 전국을 돌며 개업·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대포차주들이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보험 미가입, 불법 행위 적발 등을 이유로 행소니를 치는 경우도 있어 억울한 피해자도 발생하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장영수 광역수사대장은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가 차량 판매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면서 "그러나 대포차 구매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어 대포차 수요가 꾸준하며, 이에 따라 불법 유통업자가 없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신병가족 면회...31사단 '웃음꽃'

13년만에 행사 크호음 가족이 계급장 달아줘

육군 제31사단이 신병훈련을 마친 병사들에 대한 가족 면회 행사를 13년 만에 다시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21일 광주시 북구 삼각동 31사단 연병장에는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다. 입대 한 병사들이 5주간의 신병훈련을 마치고 부모·형제들과 재회한 것이다. 부모들은 훈련 기간 검게 그을린 아들을 얼싸안으며 재회의 기쁨을 나눴다. 신병들은 가족들이 달아주는 이등병 계급장을 바라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날 행사에는 신병 227명과 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부대 측도 13년 만에 다시 열린 행사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부대 측은 이날 가족이나 친척이 참석하지 않은 훈련병들에 대해 가족 대신 계급장을 달아줬다. 또 점심에는 삼겹살 파티를 열어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무사히 마친 병사들을 위로했다.



21일 육군 31사단에서 열린 '신병훈련 수료식 가족면회' 행사에 참석한 가족과 병사들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연속자(여·44·광주시 서구)씨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많은 걱정을 했는데, 훈련을 받는 동안 얼굴도 많이 밝아지고 남다른 위풍이

같아 안심했다"고 말했다. 신병훈련을 수료한 문종기(21)이병은 "힘겨운 훈련과정을 마치고, 어머니를 만나게 돼 기쁘다"며

"부모님은 물론, 국민들이 신뢰하는 멋진 군인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www.ah-english.com

원어민영어회화

압구정영어가 한다!

년수입 10만달러 이상인 가정이거나 자녀가 10만달러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영어회화**에 투자 해야합니다.

왜? 압구정인들(고소득자)은 그렇게 하고있다!! 수강료는 뽕지너를 합니다 (월15만원/매25분수업)

압구정 원어민전용 전화영어·화상영어
070-7433-0594

홈페이지제작은 기본! 모바일홈페이지 까지!

도메인 호스팅
로그인 디자인 컨설팅

홈페이지만 만들면 이 모든것이 무료!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작 상담 폭주!
(아이폰, 안드로이드 등)

상담문의 010-2637-9358
마블아이엔씨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KDB빌딩 1904호

완벽한 방수성 + 리모델링 효과로 건물의 수명과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無중금속 無독성 내구성 내마모성 내오염성

이파엘지 하이브리드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공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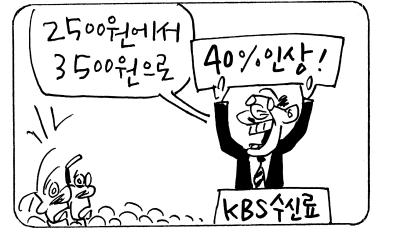
시공전 방탕정리및 고압수크린징 하이브리드 외벽프라이머 시공후

하이브리드 외벽마감1차 크랙보수및 취약부위보강 하이브리드 외벽마감2차

이파엘지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 WWW.IPALG.COM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나원침 (8298) 김장두



불법 주정차 극심 시내버스 노선변경 추진에 상무지구 주민들 "자구 노력" 광주시와 협약 시민정신 지켜질까 촉각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주민들이 시내버스 노선 유지를 위해 불법 주정차를 막는 자구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의 이색협약을 광주시와 체결했다. 이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 행정기관과 주민대표 간 맺은 최초 협약으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21일 "상무지구 내 4차로 인 비둘기길에 불법 주정차와 노점상 등으로 인해 버스 운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해 오는 30일부터 노선을 변경하려 했으나 주민들이 자구노력을 통해 버스의 지체를 최소화하겠다고 해 협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둘기길에는 시내버스 10개 노선이 배치돼 하루 124대 1278차례 지나고 있으나 2개 차로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점유했고 있는데다 매주 금요일이 열리면서 운행시간과 배차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

애초 버스 승강장도 승차는 비둘기길, 하차는 바로 옆 8차로인 시청로로 하게 돼 있어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조합은 이날 30일부터 시청행 노선개편안에서 비둘기길 승차노선을 하차노선인 시청로로 통일시키기

로 하고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0일 공청회에서 상무지구 주민들은 물론 지역 시의원·구의원 등이 버스노선을 변경하면 출근·통학 시 100m 정도를 걷는 불편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으며, 대신 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에 대해 지도·계몽·단속과 무인카메라 설치·운영 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서구, 서구의 회 의원, 상무지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상무지구 아파트연합회장, 서구 치평동 부녀회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이날 오후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러나 민선 자치 이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 노점상을 단속할 경우 '생존권 문제'로 비약될 가능성도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일단 자구노력을 통해 시내버스 운행 여건이 개선되는 지 여부를 파악한 후 후속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면도로 밤샘주차 94대 적발

광주시, 외지차량이 절반

광주시는 지난 20일 자정부터 21일 새벽 4시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및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돼 있는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동구 14대, 서구 34대, 남구 10대, 북구 20대, 광산구 14대 모두 94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94대 중 화물차가 55대, 전세버스 등이 21대, 덤프트럭 등 건설

기계가 18대로 타 지역 등록 차량이 49대로 52%이고, 관내 차량이 45대로 48%였다. 외지 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광주시는 지금까지 화물차, 건설기계 등의 불법 밤샘주차로 인해 최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민원이 제기돼 지난 19일까지 주요 대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단속안내서 배포 등 계몽활동을 벌인 뒤 단속에 나섰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무안 영산호 청둥오리·잉어 떼죽음

무안에서 청둥오리와 물고기 떼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돼 관계당국이 역학조사가 나섰다.

21일 목포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께 무안군 몽탄면 몽탄대교 인근 영산호에서 청둥오

리 50마리와 잉어 100여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청둥오리 등은 불법으로 설치된 어망에 걸린 채 죽어 있었으며 불법 어망에 대한 수거 작업을 벌이던 관계기관에 의해 발견됐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군산 해상서 선원1명 숨져

21일 오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군산선적 어선(7.9t 연안안강망)에서 선원 이모(46)씨가 작업기계에 의한 사고로 숨졌다.

함께 작업을 한 선원들은 "이씨가 그물을 끌어 올리던 중 갑자기 그물과 함께 양망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박승기기자 nogusu@

배달원 취업해 음식값·오토바이 출처

○중국음식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음식값과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서행.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25)씨는 지난달 29일 밤 9시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장모(44)씨의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한 뒤 수급한 음식값 20만원과 시가 1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현금 50만원과 오토바이 2대를 훔친 혐의.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사이트를 통해 훔친 오토바이를 20만~200만원을 받고 판매했는데,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